

질문과 답변

◦ Q1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어떤 병인가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더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Q2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합니다.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호흡기 분비물에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나, 비말전파는 호흡기감염병(코로나19 등)에 비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부 원숭이두창 환자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 Q3 엠폭스(원숭이두창)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을 시작으로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Q4 최근 엠폭스(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비풍토병 국가는 어디인가요?

'22. 5. 7일 영국에서 1건의 원숭이두창 유입사례(나이지리아) 보고 이후, 미국(29,687명), 브라질(10,293명), 스페인(7,416명), 프랑스(4,114명), 콜롬비아(3,908명) 등 다수 국가(12.21일 기준 국외 발생 누적 현황)*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총 92개국, 12.21일 기준)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폴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그리스, 룩셈부르크, 체코,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몰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안도라, 불가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모나코,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조지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산마리노, 미국,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과테말라,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바하마,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쿠바,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레바논, 카타르, 요르단, 바레인, 이란, 싱가포르, 인도, 태국,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중국(홍콩포함),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수단, 이집트, 모잠비크

* 국외 발생현황은 「해외감염병NOW」에서 확인하세요. ([해외감염병 발생소식 바로가기](#)) [☞](#)

◦ Q5 엠폭스(원숭이두창)에 감염되어도 안심할 수 있나요?

엠평스(원숭이두창)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소아, 임산부, 수유부, 기저질환자 등)에서 드물게 중증(출혈, 패혈증, 뇌염, 융합된 병변 등)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증(이차세균감염, 심한 위염, 설사, 탈수,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뇌(뇌염) 또는 눈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6 국내에서 엠평스(원숭이두창) 확인을 위한 진단 검사 방법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엠평스(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과 혈액 검체에서 유전자 검출검사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엠평스(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의 검체가 검사실에 접수 된 후 약 6시간 소요됩니다.

◦ Q7 잠복기에 진단검사를 하면 엠평스(원숭이두창) 감염 확인이 가능한가요?

엠평스(원숭이두창)는 감염병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감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8 엠평스(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현재, 엠평스(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검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가 엠평스(원숭이두창)가 의심이 된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후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검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Q9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접촉자는 확진환자가 첫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피부병변 가피가 탈락될 때까지 감염병환자등과 다음과 같은 접촉이 있는 경우, ①신체 직접 접촉(성접촉 포함), ②오염된 도구(의복, 침구류 등) 접촉, ③적절한 보호구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대면 접촉(face-to-face exposure), ④오염된 환경에서 흡입 또는 점막이 노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엠평스(원숭이두창) 환자의 밀접접촉자는 감염원 증상, 개인보호구 착용, 체류시간, 체류장소 환경에 따라 접촉자(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개인보호구 미착용, 직접 접촉 또는 고위험 환경 노출

중위험군: 보호구 미착용, 감염성물질 비말 또는 잠재적 에어로졸 노출

저위험군: 보호구 착용 후 신체 또는 비말 노출, 신체 접촉이 없고 비말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음

◦ Q10 엠평스(원숭이두창)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나요?

현재 두창과 엠평스(원숭이두창)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JYNNEOS)이 도입되었습니다.

◦ Q11 엠평스(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해외여행 예정자 등)?

엠평스(원숭이두창) 백신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 접종 대상입니다.

* 확진자와의 접촉 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의료진 등을 의미함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일반인이 아닌 고위험군 중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Q12 엠평스(원숭이두창) 질병명을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원숭이두창)가 유행했던 지난 1년 동안, 변경 전 질병명인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차별과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어 여러 단체·국가 및 개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질병명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WHO는 ‘22.11.28일 ‘MPOX’를 새로운 영어 질병 동의어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Monkeypox’와 ‘MPOX’를 동시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숭이두창 용어 관련 낙인 및 차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이 증가하였을 때 이를 배제할 수 없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 한글 질병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질병명을 ‘원숭이두창’에서 ‘엠폭스’로 변경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변경 전후 명칭을 병용한다고 ‘22.12.14일 발표하였습니다.

Q13 엠폭스(원숭이두창)와 다른 피부질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원숭이두창 (Monkeypox)	수두 (Varicella)	대상포진 (Herpes zoster)	단순포진 (Herpes simplex)	홍역 (Measles)
발진 사진	 <p>* NHS England High Consequence Infectious Diseases Network</p>				
발진 특징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 발진 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 손/발바닥 침범	머리를 포함하여 주로 몸통쪽으로 진행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 발진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음 손/발바닥 침범 드물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	국소적으로 피부, 점막(눈, 입술 등) 모두 침범 가능 주로 입술, 구강, 인두, 음부 쪽 발생 수포, 궤양 동반 가능	붉은 반구진성 발진 얼굴~귀뒤, 이후 몸통 중앙쪽으로 진행 탈피 가능
임상양상	발열+두통+근육통부터 시작 고열 가능 발열 1~4일 후 발진 발생	두통+근육통부터 시작 보통은 미열(38.8도 미만) 발열 0~2일 후 발진 발생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음(감각신경 침범) 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유발	발열+기침+결막염 전구증상 수일 발생 후 발진 발생

	원숭이두창 (Monkeypox)	수두 (Varicella)	대상포진 (Herpes zoster)	단순포진 (Herpes simplex)	홍역 (Measles)
림프절 병증	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 단단한 압통	드물	드물	드물	드물

(제공) 대한감염학회